

#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에 644억 투입

문화재청, 익산시 등과 함께 보존관리사업 추진계획 밝혀 익산시, 미륵사지 건축 고증과 함께 왕궁리 유적 조사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올해 총 644억원을 투입해 보존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공주시·부여군·익산시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보존관리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부소산성·관북리 유적·능산리 고분군·정립사지·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미륵사지 등을 포함해 공주, 부여, 익산 일대에 걸쳐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등재된 유적을 포함해 유적들의 상당 부분이 땅 속에 매장돼있고 지리적으로도 3개 지역에 분산돼 보존·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조사·연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429억원을 포함해 총 644억원을 들여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발굴과 고증 등 유적 조사·연구 ▲유적 정비와 전시관 보수 등의 정비·활용 사



하늘에서 바라본 익산 왕궁리 유적.

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세계유산 탐방 거점 대상지 매입과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 연구, 수촌리 고분군 자료 전산 기록화, 송산리 고분군 지하물리탐사 등을 추진한다.

부여군은 부소산성, 나성, 능산리 고분군, 화지산 유적, 가림성, 구드래 일원의 유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함께 유적 지리 정보 구축 기반을 위한 기준점 부소산성 내 소화전·폐쇄회로TV 같은 방재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나성 능산리 사지 구간 정비, 관북리 유적 임시 흥보교육관과 정암리 와요지의 보호각 건

립, 구드래 일원에 대한 보존·관리·활용 계획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건축에 대한 고증 연구와 금당지 기단 정비,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와 전시관 새 단장,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 증축, 쌍릉 대왕릉 목관 제작과 봉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주시·부여군·익산시와 함께 백제 후기 유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왕도의 정체성을 정립함은 물론, 지역 문화유산을 매력적인 자원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보물 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고창군은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1974년 9.27.)였던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禪雲寺 萬歲樓)'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 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조선 후기 불교사원의 누각건물이 시대적 흐름과 기능에 맞춰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로, 구조적으로는 자재 획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창성 가득한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만세루는 1620년(광해군 12)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됐으나 1752년(영조 28)에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단층건물(맞배지붕)로 다시 지어져 현재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다.

최초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으나 재건과정에서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세루는 국내 사찰누각으로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으로 매우 드문 사례다. 중앙 3칸과 좌우 각 3칸의 보를 거는 방식의 차이가 보이는데, 이처럼 한 건물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적 안정을 꾀하면서 누각의 중앙 공간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 자연 그대로 휘어진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함으로써 당시 목재 수급의 어려움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 극복해 냈다.

특히 자연스럽게 돌로 깔라진 나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 상부에서 보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창의적이고 예술성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날 '고창 선운사 만세루'의 건축학적 특징과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

이후 30일간의 예고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보물 승격 및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존속 및 복장유물'의 도 유형문화재 지정 등 문화재 지정과 승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또 올해에도 도지정문화재인 '고창 무장동화농민혁명기포지'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및 '삼금리 지식묘군', '남당회맹단' 등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해 학술 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입점업체 수수료 전액 면제

한옥마을 내 전용 판매관 입점 89개 업체, 기존 공제 30% 전액 면제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업체로 한옥마을 내 전용 판매관에 입점한 89개 업체이며, 올해 6월 말까지의 판매상품에 대해 기존 30%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액 전액을 해당업체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판매수수료는 카드 단말기 사용료 등의 판매관 유지보수와 택배지출 등의 경비로 사용되

고 있으며, 수수료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관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조정해 보전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거쳐 적용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스토리가 담겨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선정해 전용판매관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2017년말 개관한 100선 전용판매관은 2019년 말 기준, 3억7,000만원의 매출실적으로 전년대비 26% 상승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대규모 행사 취소에 따른 단체 주문 감소로 작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46%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출증대를 위한 할인행사 및 온라인 이벤트 등을 실시해 면역력 증진 제품과 방학 연장으로 인한 아이들 간식 등의 상품을 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3월 기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는 89개 제품이 판매 중이며,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입점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4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사업주로서 4월 23~24일 2일간, 전북도문화관광재단에 방문 접수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 문화재청, 코로나19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연기

문화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21~24일 예정됐던 문화재수리기능자 24개 종목 자격실기시험을 5월 26~29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변경된 자격시험 일정은 야외에서 시행되는 만큼 휴식기인 6월 중순~9월 초 휴식기인 11~12월은 피하는 한편 시험 연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됐다. 다만 추후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

연기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험 접수자 이미 완료된 만큼 접수자 중 변경된 시험일정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전인 다음달 26일까지 응시 취소시 시험 접수비용을 100% 환불해줄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다음달 4일 예정됐던 문화재수리기술자 6개 종목의 자격 필기시험도 지난 10일 추후 재공지하기로 하고 연기한 바 있다. /뉴시스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